

# “내년 총선, 전남 핵심 현안 풀어낼 계기 삼아야”

### 민주당 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제안 혁신도시 활성화·예산지원 등 현안 대응 목소리 내야

내년 총선을 계기로 전남 핵심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도 논의됐다.

공정한 공천 경쟁과 정계개편에 대비하는 한편, 전남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고 정치권과 연계, 예산 지원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의 지역화·전략화, 내·외부 인재 발굴=문병주 민주당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2020 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갖춰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책·전략·홍보·조직 분야로 나눠 제안했다.

정책 분야는 ‘지역화’를 첫 손에 꼽았다. ‘혁신도시 시즌 2’, 광주·전남 상생발전정책 등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한 광역 단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사회·문화·역사적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체험형 지역 특화정책을 마련,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전공대 설립과 지역인재양성 교육’ 등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의 전략화’를 제시했다.

홍보 부분의 경우 ‘선택과 집중’, ‘타깃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간단 명료하게 표명하는 한편, 2030세대와 4050세대, 50대이상 등 세대별로 나눠 SNS, 인터넷, TV·신문

등 미디어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을 조언했다.

조직 분야에서는 대선·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책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별 활동가, 지역 오피니언리더 등을 불러들여 지역조직을 복원하는 한편, 민주당 정체성과 역사성, 사회성에 부합하는 외부 인재를 영입하면서도 당 발전과 정책 실현에 기여한 당내 인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게 필요하다는 ‘관리의 지속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핵심 현안 풀어낼 계기로”=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0 총선 전남의 핵심정책과제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남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핵심 정책 과제 11개를 꼽고 적극적 방향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이 꼽은 11개 과제는 ▲실질적 균형발전정책 추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구 감소시대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공공시설 재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 지역 여건에 맞는 압축도시 조성 전략 추진 ▲농촌지역 폭염피해 대응방안 마련 ▲직접지불제 개편 ▲스마트팜과 농산업 스마트화 ▲에너지신산업·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생기가 도는 농어촌 조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연계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성사 여부에 따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오후 중국 국가체육총국에서 귀중원 체육총국장(장관), 저우지홍 수영협회 회장을 예방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中,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적극 지원

중국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국 방문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귀중원 중국 국가체육총국장과 만나 광주수영대회 관련 면담을 가졌다. 귀중원 국가체육총국장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격이다.

이 시장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광주수영대회를 계기로 문화·체육 분야까지 교류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며

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귀중원 총국장은 “중국은 대한민국의 이웃 나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광주수영대회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선수단장으로 참가하고 싶은 마음으로, 광주수영대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이 주어진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귀중원 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저우지홍 중국수영협회장과 광주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힘 모은다

### 유치 추진단 구성 위촉식 완도수목원 후보지 선정

전남도가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각계 인사로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남도는 29일 지역 정·재계와 학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추진단’을 꾸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200~500ha 규모에 15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산림청은 6월 대상지 공모, 7월 현장심사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8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치 추진단은 전남의 완도수목원이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남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생태·경관·관광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 현장 심사·평가를 통해 후보지인 장흥 천관산지구, 강진 부용산지구, 해남 달마산지구, 완도 완도수목원지구, 진도 지력산지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완도수목원을 유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완도수목원에는 불가사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78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연중 기온 섭씨 14도 이상 난대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입지로 최적지라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 난대림과 완도군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초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7월 산림청 현장심사와 타당성평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박병호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추진단장은 “완도수목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난대림의 보고”라며 “산림청의 타당성 평가에 대비해 유치 당위성을 발굴하고 범도민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국립난대수목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본격 시행

### 6월부터... 사회적 약자 지원

전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은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내분·부조리’ 의혹 교통약자이동센터 점검 착수

광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사)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도·점검에서 광주시는 ▲조직운영(인사관리, 복무관리) 분야 ▲예산·회계분야 ▲장비 및 교육 실태 ▲고객관리 분야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살핀다.

센터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등을 통해 보완한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의 서비스 지원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 만큼 서비스가 성실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해 향후 재협약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09년 장애인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009년 광주시와 출연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4월 현재 1만1800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교통약자이동센터 노동조합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 책임자들의 인권침해 부조리 해이, 비합리적 규정·인사평가 기준 등 미흡한 제도, 차별·편파적 운영으로 내부 갈등이 그칠 줄 모른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  
Marching for our Beloved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관현악 공모선정곡 초연

# 님을 위한 행진곡

## 님의 오월, 광주의 오월

<Program>

Sibelius / Finlandia Op.26 (시벨리우스 / 핀란드어)  
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La Grande Porte De Kiev'  
(무소르그스키 / 진람회의 그림 중 키예프의 대문)

창작관현악 공모선정곡

김신 / 님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  
임유미 / 님의 오월, 광주의 오월  
김민경 / 죽은자의 꿈 (Totentraum)  
Tsaliikian Miran / The Heroes' Oath Symphonic Poem for the Heroes  
(트살리키안 미란 / 영웅들의 맹세 (영웅들을 위한 교향시))



지 휘 박승우  
연 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9. 5. 31.(금) 19:30 빛고을시민문화관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광주문화재단 Kwangju Cultural Foundation 공연문의 062-670-7462